

시각 이미지의 메타기능 분석

- <리틀 드러머 걸(The Little Drummer Girl)>을 중심으로*

박 건 영
(한국외대)

1. 서론

영상번역이 번역학의 독자적 연구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영상번역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궤도에 올라 1990년대 후반에는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연구의 양이 증가하면서 연구 영역 또한 점차 다양해져서, 초기에 언어 간 자막 번역에 치중했던 영상번역 연구는 점차 문화 분석, 기호 분석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영상텍스트의 보급으로 인해 영상번역은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조성은 2014).

* 본 논문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조성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1학기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의 '영상번역' 수업을 함께 수강한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호학에서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의¹⁾ 개념이 등장하면서 최근 들어 번역학에서도 멀티모달리티를 이론적 틀로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의 초점은 언어이며 그 외의 다른 모드와 매체에 대한 번역 이론과 분석 도구의 사용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Kaindl 2019: 54). 또한 이제까지 멀티모달리티를 이론적 틀로 활용한 연구는 번역서 표지(이상빈 2019; 최희경 2011; Li, Li and Miao 2019), 영화 포스터(신나안 2018) 등 시각 기호라는 동일 기호 내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영상번역의 텍스트인 영화, TV 드라마, 광고, 인터넷상의 각종 영상 등은 보는 이의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접근하는 장르이며, 이들 텍스트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목표 관객을 대상으로 번역될 때 청각 기호는 더빙, 보이스오버(voice-over), 화면해설(audio description) 등 원본과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나 화면의 시각 이미지는 변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영상번역에서 시각 기호는 빼놓을 수 없는 분석대상이다.

본 연구는 멀티모달리티를 번역에 접목하기 위해 언어 기호가 영상 텍스트의 시각 기호로 구현되었을 때 시각 이미지의 기능과 시청자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야콥슨(Jacobson)은 언어 기호를 비언어적 체계의 기호로 해석하는 행위를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으로 정의 한 바 있다(Jacobson 1959/2000: 114, Munday 2016에서 재인용). 본 논문에서는 소설이 TV 드라마로 제작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독자에게 언어 기호로만 내용을 전달하는 소설이 관객에게 시청각 이미지를 전달하는 영상물로 구현됨으로써 언어 기호에서 전환된 시각 기호가 소설의 내러티브와 인물을 시청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소설 『The Little Drummer Girl』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명의 TV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The Little Drummer Girl)>을 각색(adaptation)이자 기호 간 번역의 사례로 규정하고, 크레스와 반 류우벤(Kress and Van Leeuwen)이 시각 이미지 해석의 틀로 제시한 시각 문법(visual grammar)을 사용해 드라마에 나타난

1)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는 기호학, 멀티미디어,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한국어로는 '다중모드성', '다중기호성' 등으로도 쓰이나 현재 공식 용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검색 결과에서도 찾을 수 없다(2020. 5. 1. 검색). 본 논문에서는 '멀티모달리티'로 표기하기로 한다.

시각 기호를 분석하고자 한다. 영상 텍스트인 드라마에서 시각 기호가 수행하는 기능을 관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상호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구성적 기능(textual function)의 3가지 메타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감독이 소설의 플롯과 인물을 드라마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시청자에게 제시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각색(adaptation)

‘Adaptation’의 우리말 단어 ‘각색’의 사전적 정의는 ‘1. 서사시나 소설 따위의 문학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는 일, 2. 흥미나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실제로 없었던 것을 보태어 사실인 것처럼 꾸밈(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한편 번역학에서 각색은 자국화(domestication)의 개념과 유사한 번역 전략인 ‘번안(원작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고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도 사용되나,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각색은 야콥슨의 기호 간 번역의 일환이다.

야콥슨은 번역을 언어 기호를 동일 언어의 다른 기호로 해석하는 동일 언어 간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 특정 언어의 언어 기호를 다른 언어로 해석하는 뜻 언어 간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 언어 기호를 비언어적 체계의 기호로 해석하는 행위인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Jacobson 1959/2000: 114, Munday 2016에서 재인용). 먼데이(Munday 2016: 9)는 야콥슨의 정의는 기호학(semiotics)에 기반하며 기호 간 번역은 문어 텍스트를 음악, 영화, 그림 등의 다양한 모드로 번역할 때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그 예로 오손 웰즈(H. G. Wells)의 공상과학 소설 『The War of the Worlds』를 연극으로 각색한 사례와,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소설 『Pride and Prejudice』를 인도에서 영화 『Bride and Prejudice』로 각색한 사례를 들었다.

밀턴(Milton 2018)은 번역학이 뜻 언어 간 번역을 주로 다룬 것에 반해 각색 연구는 주로 기호 간 번역과 동일 언어 간 번역을 다루며,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을 연극, 그 다음에는 영화, 그 다음에는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각색하는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또한 베누티(Venuti 2007)의 주장을 언급하며, 다수의 영화 각색 연구에서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데 투리(Toury)의 수용성(acceptability)과 충분성(adequacy) 개념이 등가(equivalence)를 규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밀접히 관련된 학문인 번역학은 각색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트리스(Catrysse 2019)는 ‘번역(translation)’과 ‘각색(adaptation)’의 정의, 그리고 이 둘을 한 대상을 연구하는 한 가지 학문으로 볼 것인지, 두 다른 현상을 연구하는 두 가지 학문으로 볼 것인지를 문제는 늘 논의의 대상이었으며, 각색과 번역은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연구라는 상위 학문의 구성원과 같으므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조성은(2005)의 연구도 각색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강조하면서, 소설 『Pride and Prejudice』를 영화로 각색한 사례의 연구에서 소설에서 영화로 매체가 변환되는 것은 다양한 요소와 부분을 포함하며 ST의 신호, 구조, 일련의 사건은 각색된 매체에서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는 따라서 각색은 상호텍스트성을 지니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색자는 원작에서는 숨어있는 특정 요소를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자신의 해석에 맞추어 소설의 구조를 재구성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각색과 번역을 서로 밀접히 관련된 개념으로 보고, 각색 연구에 번역학 이론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색을 번역의 한 영역인 기호 간 번역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문학 번역, 영상 번역의 자막 제작과 마찬가지로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도 감독이 의도한 행위인 번역으로 보고 그 결과물인 영상물을 번역 텍스트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설이 언어라는 한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데 반해 영상물은 대사, 음향, 움직이는 이미지 등의 여러 가지 기호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호가 하나의 통합된 텍스트를 이루는 영상물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최근 번역학에서 대두되고 있는 멀티모달리티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시각 이미지 문법(grammar of visual design)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2.2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

페레즈 곤잘레스(Pérez-González 2014: 185-187)는 멀티모달리티는 발화, 활자, 시각화와 음악의 결합이며, 영상 텍스트에서는 기호 자원의 상호의존성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영상 텍스트는 자막, 편집, 이미지, 음악, 시각, 관점 등 다양한 기호를 동시에 포함하므로, 멀티모달텍스트로도 불린다. 페레즈 곤잘레스는 멀티모달 기호학을 연구하면 이제까지의 영상번역 연구에 대한 비판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의 이론적 틀이 다른 기호에 비해 언어를 우선시했던 것에 반해, 멀티모달리티는 텍스트 내의 다양한 기호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이론적 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외 영상번역학자들은 모두 이제까지의 영상번역 연구가 자막, 더빙과 같은 언어학적 접근 중심인 것을 지적하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왔다(조성은 2014; Pérez-González 2014).

영상번역을 포함하여 번역학에서 이제까지 국내외의 멀티모달리티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희경(2011)은 번역서의 변이 양상을 원서와 번역서 표지 도안에 대한 기호학적 대조 분석으로 확인했다. 선영화(2016)의 연구는 『The Lost Thing』이 그림책에서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정 및 변이 양상을 시각 기호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중적 스크포스를 달성하기 위한 번역사의 전략을 고찰하였다. 신나안(2018)은 영화 포스터를 번역할 때 정보량의 조절이 어떻게 독자의 몰입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영화 포스터 텍스트-이미지 관계의 변이 양상과 엔트로피와 리던던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상빈(2019)의 연구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출간된 여성/젠더 분야 역서 앞표지와 원서 앞표지의 그림텍스트와 글 텍스트를 분석해 다양한 번역 현상을 확인했다. 국외 연구의 경우, 리, 리와 마오(Li, Li and Miao 2019)의 연구는 영국의 중국인 작가가 영어로 쓴 논픽션 『Wild Swans』의 원본과 프랑스어 역서, 중국어 역서의 표지를 분석하여 그 이면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했다.

상기한 멀티모달리티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선영화(2016)의 연구는 영상 텍스트인 애니메이션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나 비교대상인 원작은 그림책이므로 정적 시각 이미지가 동적 시각 이미지로 변환된 사례이며, 나머지 연구는 책 표지, 영화 포스터와 같이 정지된 이미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공통적으

로 시각 기호가 시각 기호로 전환된 사례의 연구이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언어 텍스트인 소설이 영상 텍스트인 드라마로 각색된 사례에서 언어 기호가 시각 기호로 어떻게 전환되고 시각 기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멀티모달리티의 개념 중 시각 이미지 문법을 사용하였다.

2.3 분석 모델: 시각문법(visual grammar)과 기호의 메타기능(metafunction)

크레스와 반 류우벤(2006)은 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의 언어 분석틀을 시각 기호에 적용하여 시각 이미지에서도 이미지의 사회적 맥락에 따른 내용과 형식을 분석할 수 있는 문법을 찾고자 했다(최희경 2011). 이들은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 할리데이가 제시한 세 가지 언어적 메타기능이 말이나 글 뿐 아니라 모든 기호의 형태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 세 가지 메타기능은 관념적 메타기능(ideational metafunction), 상호적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 구성적 메타기능(textual metafunction)이며 시각 기호에 메타기능을 적용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시각 기호의 메타기능²⁾

관념적 메타기능 (ideational metafunction)	기호 체계가 해당 기호 이상의 의미를 전달 예) 파란색이 바다를 상징
상호적 메타기능 (interpersonal metafunction)	기호 체계가 이미지 생산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를 형성.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신자에게 요구를 함 예) 빨간색이 경고 또는 낭만적 분위기 형성
구성적 메타기능 (textual metafunction)	기호 체계가 텍스트 내 정보의 흐름에서 일관성 있는 전체를 형성 예) 활자 텍스트에서 빨간색을 제목에 사용하여 동일한 배치를 나타냄

2) 매친(Machin 2007)을 참조해 정리했다.

2.3.1 관념적 메타기능(ideational metafunction)

기호 체계는 관념을 표현한다. 시각 기호의 관념적 메타기능은 시각 기호가 ‘우리 주변과 내부의 세계’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모든 기호는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의 측면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즉, 표현하는 체계 외의 세계에 있는 대상과 그 관계를 나타내야 한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42).

매친(2007)은 바르트(Barthes)가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literal)의 의미인 지시(denotation)와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숨겨진(hidden) 의미인 함축(connotation)의 두 가지 층위로 나누었다고 언급하고(Barthes 1977, Machin 2007에서 재인용) 시각 이미지에서 함축 기능을 하는 매개체로 등장인물의 자세(pose), 사물(objects), 배경(settings), 촬영술(photogenia)을 들었다.

색채는 인물, 장소, 사물은 물론 더욱 일반적인 관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국기의 색은 국가를 상징하며 많은 기업이 특정 색을 사용해 정체성을 의미한다. 지도에서는 색으로 물, 사막, 산을 표현하며 제복의 색은 지위를 나타낸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246).

특정 사물이나 개념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주의를 끄는데 언어를 사용하듯이 시각 이미지도 강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기나 색을 이용해 특정 이미지를 더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요소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념적 기능은 시각 이미지에 의해 실현가능하다(Machin 2007: 18).

2.3.2 상호적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

상호적 메타기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사회적 관계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기호는 생산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모드는 수신자, 시청자, 나타내는 대상간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정지된 시각 이미지에서 카메라의 위치는 시청자와 이미지에 묘사된 대상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시각 이미지에서 묘사된 인물은 카메라를 응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걸듯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는 해당인물과 시청자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느낌을 전달한다. 그러나 시청자로부터 시선을 돌린 것으로 묘사된 인물은 상호작용의 부재를 나타내며, 이 경우 시청자는 인물을 진열장에 있는 표본과 같이 면밀히 살필 수도 있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42-43).

동적 시각 이미지에서는 이에 더하여 카메라를 움직여서 카메라와 대상 간의 거리와 카메라 앵글을 변화해서 대상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아도 등장인물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상과 시청자와의 관계 및 등장인물간의 관계가 시청자의 눈앞에서 역동적으로 변화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적인 이미지의 변화는 사회적 관계를 동적이고 유연하며 변화 가능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261).

2.3.3 구성적 메타기능(textual metafunction)

구성적 메타기능은 모든 요소가 내부적으로는 서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생산된 맥락 안에서 일관성 있는 ‘텍스트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때 시각 문법은 다양한 자원, 즉 구성 요소의 배열 등을 통해 다양한 텍스트적 의미를 구현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왼쪽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43).

구성적 요소는 정적 시각 이미지는 물론 동적 시각 이미지인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 구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동적 이미지에서는 대상 이미지 및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동적인 구성을 형성할 수 있다. 텍스트의 시작 부분에서는 정해진 위치에 있던 이미지가 시청자의 눈앞에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기도 하고, 부각되지 않았던 이미지가 특정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 상호작용 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적 측면에서도 이미지의 대상과 카메라가 모두 구성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264-265).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각 이미지의 관념적, 상호적, 구성적 패턴은 동적 이미지에도 적용되며, 크레스와 반 류우벤(2006: 258-259)은 영화의 장면은 언어와 유사하지는 않으나 기호적 잠재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념적, 상호적, 구성적 자원이 드라마의 시각 기호에서 어떻게 구현되며 이들 기능이 시청자에게 등장인물과 내용의 전달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갖는 지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3.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 텍스트는 영국의 소설가 르 카레(le Carré)가 1983년에 발표한 소설 『The Little Drummer Girl』(ST)과 2018년에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고 영국 BBC와 미국 AMC에서 6부작으로 방영된 동명의 TV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TT)이다.³⁾

박찬욱 감독은 <리틀 드러머 걸>의 연출 의도에 대해 평소 르 카레의 오랜 팬이었으며 “이 작품을 영화 길이에 맞춰 무리하게 단축하기보다는 미니시리즈로 그 내용을 온전히 옮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하수정 2019). 박찬욱 감독은 2015년에 『The Little Drummer Girl』의 번역본 『리틀 드러머 걸』을 읽자마자 영국의 제작사에 스스로 각색과 연출을 하겠다고 제안했고 극장 상영의 기회를 잃는 것을 감수하고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씨네플레이 2019.8.4.) 해당 작품 방영 이후, 1979년이라는 시대상의 시각적 재현과 화려한 색감, 대담한 미장센은 시청자와 비평가의 주목을 끌었다.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여러 편의 에피소드로 제작되므로 총 러닝 타임이 영화보다 길고 이에 따라 시각 기호를 반복 및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연구자는 해외 만화와 소설을 각색해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영화에서 독특하고 디테일한 시각적 표현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감독이 ST를 드라마로 각색한 데에는 시각 이미지 표현을 부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영상 텍스트의 시각 기호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택했다.

3.2 분석방법

시각 이미지의 3가지 메타기능이 영상 텍스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

3) 소설 『The Little Drummer Girl』은 1984년에도 미국의 감독 힐(Hill)이 130분 길이의 <테러리스트(The Little Drummer Girl)>로 영화화했으나, 국내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VHS 버전 외에 IPTV나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구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웹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 사이트인 와치플레이(<https://play.watcha.net>)의 박찬욱 감독판만을 분석하였다.

아보기 위해 소설 『The Little Drummer Girl』을 ST,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을 TT로 보고, ST의 인물과 플롯이 TT에서 어떻게 시청자에게 시각적으로 제시되어 관념적, 상호적, 구성적 메타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크레스와 반 류우벤의 시각 문법을 분석의 틀로 이용했다. TT에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거나 반복되는 이미지에 주목해서 해당 이미지는 ST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었으며 ST에서는 다르게 언급되거나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TT에서는 어떤 시각 이미지로 표현되었는지를 대조해 찾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등장인물의 소품과 의상, 인물의 시선 및 화면 내 인물의 배치 등을 시각 기호로 보고 3가지 메타기능으로 분류한 후 이들 기능은 시청자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지 분석했다.

4.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ST인 『The Little Drummer Girl』은 영국의 스파이 스릴러 장르 소설가 르 카레가 1983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은 1979년 영국으로 무명 여성 연극배우 찰리(Charlie)가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Mossad)가 짜놓은 작전에 개입되어 모사드와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 사이에서 테러리스트 미셸(Michel)의 애인으로 가장해 이중 첩자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박찬욱 감독은 해당 소설을 6부작 드라마로 각색하였고 ST와 TT의 기본 플롯은 동일하다. 본 장에서는 ST에서 언어 기호로 표현된 부분이 TT에서 시각 기호로 전환된 결과 TT 속의 시각 기호가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를 관념적 메타기능, 상호적 메타기능, 구성적 메타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4.1 관념적 메타기능

TT는 등장인물의 복장과 소품을 통해 인물의 정체성과 역할을 시청자에게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TT는 ST에서 언어적으로 제시된 부분을 대체하거나 강조하는 한편, ST에는 없는 요소를 추가해 등장인물을 시청자에게 강하게 전달하고 인물의 파악을 쉽게 하도록 한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⁴⁾

4) 영상 이미지는 <The Little Drummer Girl>의 저작권 소유자인 영국의 제작사 잉크 픽

<그림 1> 칼릴 관련 정보 전달



<그림 1>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인 칼릴(Khalil)이 시한폭탄을 제조하는 장면과 그가 제조한 시한폭탄에 남은 표식을 클로즈업한 장면이다. ST에서는 독일 폭탄 테러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재현한 폭탄과 실제 테러 현장에 남은 폭탄 잔해의 전선 길이가 50cm 가량 차이가 난다고 서술될 뿐(Le Carré 1983: 30-31), 폭탄에 특정한 표식이 남아있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TT는 1화의 첫 장면에서 칼릴이 시한폭탄을 제조하는 모습을 뒷모습과 목 아래로만 보여주면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존재를 시청자에게 강하게 각인하는 한편 폭탄에 남기는 표식의 이미지를 반복해 클로즈업한다. 이에 따라 해당 표식은 칼릴과 매칭되며 수사과정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표식의 이미지를 통해 시청자는 동일 인물이 폭탄을 제조해왔고 이는 첫 장면에 나온 인물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 찰리의 의상과 소품



<그림 2>는 주인공 찰리의 의상과 소품이 나타난 장면이다. 채도가 낮은 색의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던 찰리는 모사드의 작전에 개입해 미셸의 연인 역할을 수행할 때는 모사드로부터 받은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의 드레스를 입는다. 시각 문법에 따르면 색은 특정 인물, 장소,

토리(The Ink Factory)로부터 비상업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사용을 허락받았다.

사물을 의미할 수 있으며, 채도가 높은 색은 감정적 격렬함과 이국성을 나타낸다(Machin 2007: 75). 극 중에서 테러리스트인 미셸과 안나(Anna), 찰리가 미셸의 연인 역할을 하도록 돕는 모사드 요원 가디(Gadi)의 의상도 채도가 높아 채도가 낮은 색의 복장을 한 다른 인물과 구별되고 시청자에게 강렬하게 제시된다. 한편 찰리와 가디가 테러리스트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등장인물과 유사한 채도가 낮은 색 복장을 입는다. 매친(2007: 18)은 시각 이미지의 크기나 색채를 이용하거나 다른 이미지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특정 시각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보다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에 의해 관념적 메타기능을 시각적으로 실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림 2>의 원색 의상을 입은 찰리는 시청자에게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고 찰리의 역할이 더욱 강하게 인지되는 효과를 낳는다.

<그림 2>의 오른쪽 장면에서 보이는 팔찌 역시 찰리의 역할에 대한 시각적 단서가 된다. 찰리는 모사드의 이중첩자가 되어 테러리스트 미셸의 애인을 연기하기로 하고 미셸이 준 것으로 가정한 화려한 보석 팔찌를 착용한다. 찰리의 평소 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진 팔찌는 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닌 테러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화면에서 지속적으로 클로즈업되므로 시청자는 그의 착용 여부를 통해 현재 찰리의 역할을 인지할 수 있다. 한편 찰리가 보석 팔찌를 뺀 후 직접 만들어 착용하는 실 팔찌도 자주 클로즈업되는데 이는 찰리가 모사드에 같은 편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지품이다. 크레스와 반 류우벤(2006)은 대상의 크기, 색조 대비, 형태 등을 통해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지 수용자의 주목을 끌 수 있다고 했다. TT는 소품의 클로즈업을 통해 시청자가 해당 이미지에 주목하고 캐릭터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 가디와 미셸의 소품



<그림 3>은 모사드 요원 가디와 테러리스트 미셸의 소품을 보여준다. 가디는 찰리가 미셸의 애인 역할에 몰입하도록 미셸 역할을 하며, 미셸과 같은 복장을 하고 동일한 금목걸이와 시계를 찬다. 칼릴과 마찬가지로 가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시청자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 손목의 시계가 클로즈업된다. 매친(2007)은 사물이 함축적 의미를 갖는 예로 민병대가 소총과 수류탄을 들고 있는 이미지와 정장을 입고 컴퓨터를 소지한 여성 경영인의 이미지를 언급하며 시각 이미지에 나타난 인물이 소지한 소품은 인물의 특성 및 직업의 의미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TT에서도 등장인물의 소품은 이를 소지한 인물의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가디는 미셸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들 소품을 빼는 동작을 보여줌으로써 동적 매체인 드라마에서는 소품과 역할의 시각적 연관성이 더욱 적극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3>의 오른쪽 장면과 같이 테러리스트 미셸이 착용한 시계와 반지도 클로즈업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미셸의 화려한 복장과 소품은 그가 모사드에게 잡혀 감금된 이후에는 사라지므로 소품의 시각 이미지는 등장인물의 정체성 및 역할과 함께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4> 안나와 마리오의 복장과 소품



<그림 4>는 테러 조직의 일원인 안나와 마리오(Mario)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4>의 왼쪽 장면의 안나는 미셸의 실제 연인이자 시한폭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안나가 착용한 목걸이는 화면에서 클로즈업되고 반복적으로 시청자에게 제시되며 극중에서 모사드가 안나의 정체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TT에서 화려한 금 장신구는 찰리, 가디, 미셸, 안나가 테러리스트 역할을 할 때 착용하는 공통적 소품이자 시각적 상징이다. 한편 목걸이의 화려한 디자인과 색은 찰리가 테러리스트 역할을 할 때 차는 팔찌와 유사하고 채도가 높은 노란

색 상의도 찰리가 작전에 개입하기 전 가디에게 선물 받아 입는 드레스와 비슷해 이들의 유사한 복장은 같은 역할을 상징한다. 이와 달리 ST에서는 안나의 목걸이가 언급되지 않으며 “목까지 단추를 채운 청색 드레스(a demure blue dress buttoned to the throat)”(le Carré 1983: 13)를 입은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시한폭탄을 전달하고 찰리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마리오는 <그림 4>처럼 늘 헬멧과 부츠, 가죽 재킷을 갖춘 바이커 복장을 하고 오토바이와 함께 등장해 해당 인물의 역할을 시청자에게 인지시키며 이러한 복장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도 해당 인물의 정체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시각적 단서가 된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TT는 극중 인물의 복장과 특정 소품을 ST보다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형상화하고 이들 시각 이미지를 클로즈업과 반복적 제시를 통해 강조하며 소품과 등장인물을 1:1로 매칭한다. 이에 따라 이들 시각 이미지는 이를 소지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인물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해당 등장인물을 시청자에게 제시하는 시각 기호의 기능을 하며 시청자는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물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지할 수 있다.

4.2 상호적 메타기능

크레스와 반 류우벤(2006)은 정지된 이미지와 달리 영화에서는 카메라와 등장인물 간의 거리와 각도가 계속해서 움직이며 이러한 변화는 시청자가 화면에서 보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시청자와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했다. TT는 등장인물 사이의 권력 관계와 우호성, 적대성을 인물 간의 시선의 높이 변화, 화면의 구도와 분할을 통해 시청자에게 보여주며, 이들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개에 따라 변화한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그림 5> 등장인물의 시선 높이 변화



<그림 5>는 찰리를 바라보는 두 팔레스타인 측 공작원의 시선 높이 변화를 보여준다. 왼쪽 장면에서 찰리는 같은 편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의심의 대상이다. 두 공작원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에 있는 찰리를 향하며 찰리는 내려다 보는 시선을 받는 위치로 심리 및 권력 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선 처리는 시청자에게 이들의 관계가 갈등 상황 하에 있으며 평등하지 않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ST에서는 인물의 갈등 상황을 설명할 때 대사와 동작, 심리 묘사를 주로 사용하지만 영상물에서는 언어적 설명 없이도 시각적으로 전달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오른쪽 장면에서는 이들의 시선 높이가 달라진다. 찰리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고 같은 편이라는 확신이 든 이후에 두 공작원과 찰리의 시선은 동일 선상에 위치함으로써 등장인물 간의 변화된 권력 관계와 심리적 거리를 시청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장면은 TT 초반에서 찰리가 모사드 요원들을 처음 만나 작전에 개입하게 될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정지된 이미지에서와는 달리 영화의 동적 이미지는 인물간의 관계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양상을 시각적 변화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Kress and van Leeuwen, 2006: 262).

<그림 6> 시각적 분리를 통한 단절감 제시



<그림 6>은 같은 공간에 있는 등장인물을 벽, 계단 등의 배경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분리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낸다. 크레스와 반 류우벤(2006: 175)은 두 인물이 한 장면 안에 있는데 그들 뒤에 있는 집의 문이 시각적으로 이들을 분리하여 다른 공간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소통단절을 강조하는 사례를 설명하는데, 이와 유사한 이미지를 TT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6>은 찰리가 시한폭탄 전달 임무를 마친 후 가디와 빛는 심리적 갈등을 계단 옆의 벽을 통해 두 인물을 화면상 분할하여 보여준다. 두 인물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연출자는 화면상 이들이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시청자에게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간의 심리적 분리 상태를 전달한다. 이와 달리 ST는 가디가 폭탄 전달 임무를 마친 찰리를 칼릴에게 다시 보내려 하자 찰리가 가디에게 매달리고 기대지만 가디는 찰리의 팔을 잡고 똑바로 세우는 것으로 묘사하며, 둘 사이의 적대감이나 단절을 서술하지는 않는다(le Carré 1983: 609). 이와 유사하게, 찰리가 시한폭탄을 전달한 후 칼릴을 다시 만날 때에도 ST에서는 칼릴이 우는 찰리를 차 안에서 달래는 것으로 묘사하여 의심이나 인물 간의 갈등이 없는 상황이지만(le Carré 1983: 610-612) TT는 칼릴의 은신처에 온 찰리와 칼릴을 계단 옆의 천장을 통해 시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ST와는 달리 해소되지 않은 적대감과 긴장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7> 인물의 동일시



<그림 7>에서 카메라는 가디와 칼릴을 뒤에서 따라가는 찰리의 시선,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시선과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화면은 가디와 칼릴의 뒷모습을 교차 편집함으로써 두 인물을 동일시하는 찰리의 심리 상태를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한편 시청자 역시 찰리의 입장에 이입되게 한다. 또한 극중에서 찰리는 <그림 7>의 장면에서 칼릴을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기에 시청자는 아직 두 인물이 어떤 관계가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연출자는 <그림 7>의 장면을 통해 찰리가 현재 가디와 밀접한 관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칼릴과도 앞으로 밀접한 관계가 될 것임을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이와 달리 ST에서는 찰리는 한적한 곳에 세워놓은 자동차에서 칼릴을 처음 만나게 되고 이후 이동장소인 아파트에서 그를 다시 재회한 후에야 칼릴의 정체를 알게 된다(le Carré 1983: 586-590).

〈그림 8〉 모사드 요원의 회화화



〈그림 8〉은 모사드 요원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다. TT에서 카메라는 여러 차례 이들 인물 전체를 먼 거리에서 한 화면에 담아 요원들의 모습을 작게 보여주면서 이들의 모습을 회화화하는 효과를 연출한다. TT는 〈그림 8〉과 같이 모사드 요원들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생포해서 며칠 동안이나 감금해놓고도 죄책감 없이 한데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 팔레스타인 공작원을 생포하는 장면 등을 먼 거리의 카메라에서 촬영함으로써 이들이 자신과 상대,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이 달린 심각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 이와 같이 여러 인물을 한 앵글에 넣고 먼 거리에서 촬영한 장면에서 시청자는 이들을 개인이 아닌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지며, 이들의 작전이 갖는 의미와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림 9〉 카메라를 응시하는 찰리



〈그림 9〉에서는 가디의 지시에 따라 칼릴과 성관계를 하는 찰리의 시선이 칼릴의 은신처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곳의 동정을 살피는 가디의 시선을 응시한다. 시각 이미지상의 인물이 보는 이를 직접 바라보는 것을 시각 문법에서는 “요구(demand)” 시선이라고 일컬으며, 이는 보는 이와 가상의 관계를 형성해

시청자에게 무언가 할 것을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Machin 2007: 111). 찰리는 가디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치 관찰자인 가디를 바라보는 듯이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를 응시함으로써 찰리가 자신이 다른 이에게 관찰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이 서로 관찰하고 관찰당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과 찰리의 복잡한 심경이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동시에 시청자는 찰리에게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한 가디의 입장이 된 듯한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등장인물의 자발적 움직임을 통해 시선이 바뀌는 것은 영상물만의 특징이며 (Kress and van Leeuwen, 2006: 264) TT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TT에서 나타난 등장인물의 시선 높이, 공간의 시각적 분할,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는 장면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들 시각 이미지는 등장인물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가 서로 다른 인물을 동일시하고 등장인물의 카메라 응시를 통해 감정을 이입하게 하는 등 시청자와 등장인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4.3 구성적 메타기능

마지막으로, TT는 화면상의 소품과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연결해서 보여줌으로써 플롯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사용하고 전체적 내용을 연결한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그림 10〉 시계 이미지의 연결



〈그림 10〉의 왼쪽 장면은 TT 1화 초반부에서 발생한 독일 폭탄 테러에 사용된 시한폭탄에 장치된 시계를 클로즈업한 것이다. 이 장면은 〈그림 10〉의 오른쪽 장면인 찰리가 극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영국 런던의 장소에 있는 시계를

클로즈업한 장면으로 전환된다. ST와 TT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이 사용하는 테러 수단이 시한폭탄이므로, 시계는 TT에서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물건이 아니라 테러를 의미하는 소품으로 기능한다. ST에서 찰리는 3장에서 극단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에 갔다가 가디를 만나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보부가 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 익명의 후원자가 찰리의 극단을 초청한 것처럼 이 여행을 조작한 것이므로 찰리는 사실 이미 작전에 개입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상태이다. 이에 반해 <그림 10>의 장면이 나오는 TT의 초반부는 찰리가 모사드의 작전에 개입하기 전의 시점이지만, 테러 현장의 시한폭탄에 부착된 시계의 클로즈업 이미지와 시청자가 처음으로 찰리를 보게 되는 장소에 걸려있는 시계의 클로즈업 이미지를 연결시킴으로써 찰리도 극이 진행됨에 따라 결국 테러와 연관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11> 연극 속의 찰리 이미지의 연결



<그림 11>의 왼쪽 장면은 찰리가 연극 『성녀 조안(Saint Joan)』⁵⁾을 연기하던 중 객석에 있는 가디를 발견하는 장면이다. TT는 해당 장면의 무대와 찰리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ST는 3장의 아래 인용문에서 찰리가 『성녀 조안』을 연기하던 중 찰리가 느낀 감정과 객석에 있는 가디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은 서술하지만 연극의 내용이나 장면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는다.

성녀 조안 역을 하던 참이었는데 도둑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저 멀리 꼭대기에 앉아 그녀의 연설 하나하나를 비웃고 있으니 말이다. 그 바람에 빈 강당 앞줄에 그가 학생들 사이에 앉아 있음을 깨달은 건, 마지막 장

5) 잔 다르크를 소재로 한 영국 작가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연극이다.

면이 끝난 후였다. (le Carré 1983: 76)

반면 TT는 <그림 11>과 같이 찰리가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당하는 잔 다르크를 연기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장면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 없는 영국인 민간인이지만 모사드의 작전에 개입해 테러리스트 역할을 연기하는 이중첩자이자 이념의 희생양이 되는 찰리의 운명을 시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극중의 연극에서 찰리의 무대의상과 찰리가 묶이는 화형대가 붉은색인 것은 칼릴이 살해될 때 그 옆에 있던 찰리의 몸에 피가 튀는 것, 즉 찰리가 연극에서의 배역인 잔 다르크의 죽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다른 죽음과도 관련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1>의 오른쪽 장면은 모사드 요원들이 작전의 막바지에 증거를 소각할 때 불에 타는 찰리의 사진을 클로즈업한 장면이다. 화형당하는 잔 다르크 역할을 연기하는 찰리의 사진이 불길 속에 휩싸이는 시각적 이미지는 이제 곧 찰리가 연극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위협에 처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TT의 초반부와 후반부의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연결되면서 플롯을 암시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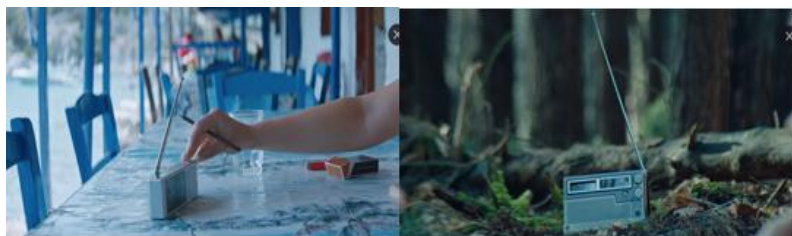
<그림 12> 밍켈 교수의 이미지의 연결



<그림 12>의 왼쪽 장면은 TT 초반부에서 영국에 있는 찰리가 극단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후원자가 극단 전체를 그리스에 보내준다는 소식을 듣기 직전, 옆방에 있는 TV에서 방영되는 뉴스 화면이다. 뉴스에는 텔아비브 하메디나 대학의 밍켈(Minkel) 교수의 얼굴과 목소리가 등장한다. 해당 장면에서 찰리를 비롯한 등장인물은 모두 뉴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밍켈 교수는

찰리가 모사드의 작전에 투입된 후 테러의 표적이 되며 <그림 12>의 오른쪽 장면과 같이 TT 후반부에서는 작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찰리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즉 영국에 있는 찰리가 그리스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찰리의 근처에 있는 TV 화면에서 밉켈 교수를 보여주는 것은 찰리가 밉켈 교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와 연관될 것임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복선이다. 반면 ST에서는 <그림 12>의 왼쪽 장면에 대한 묘사는 없고, 밉켈 교수는 23장에서 모사드 지휘관 쿠르츠(Kurtz)가 밉켈 교수가 테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림 13> 라디오 이미지의 연결



<그림 13>은 TT의 플롯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디오 관련 장면이다. 왼쪽의 장면은 찰리가 가디와 처음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기 전 찰리의 테이블 위에 놓인 라디오이다. ST에서는 라디오가 가디의 소지품으로 묘사되지만 TT에서는 처음부터 라디오가 찰리의 소지품으로 제시되고 후반부에 칼릴이 죽을 때까지 중요한 소품으로 자주 클로즈업된다. 한편 칼릴이 죽고 찰리의 임무가 끝난 후 칼릴이 이끌었던 테러집단을 모사드가 공격하는 여러 장면이 이어지면서 숲속에서 테러조직의 공작원인 헬가(Helga)가 암살되는 장면에서도 라디오가 등장한다. ST에서는 이 부분에서 라디오가 언급되지 않는데 반해 TT에서는 라디오가 시작부터 끝까지 플롯을 관통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소품으로서 시청자에게 시각적 기능을 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TT의 화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소품과 인물의 시각적 이미지는 극 전체를 통해 연결되고 반복되어 시청자에게 향후 플롯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드러내며 극의 내용을 전반과 후반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5. 논의 및 결론

5.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소설이 TV 드라마로 각색된 사례를 야콥슨이 분류한 번역의 세 가지 종류 중 언어 기호를 비언어적 기호로 번역하는 기호 간 번역으로 보고, 영상번역의 중요한 이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멀티모달리티 중 시각문법으로 영상 텍스트를 분석했다. 언어 텍스트인 소설이 각색을 통해 드라마라는 영상 텍스트로 전환된 사례에서 분석대상 텍스트에서는 시각 이미지가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고 보고 멀티모달리티적 요소 중 시각 기호에 집중하고 크레스와 반 류우벤의 시각 문법을 분석의 틀로 활용해 시각 이미지가 시청자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ST인 소설의 언어 텍스트와 TT인 영상 텍스트의 시각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소설에서 언어로 표현된 부분이 영상물의 시각 이미지에서는 변화하거나 강조되었고 소설에서 서술되지 않은 부분이 시각 이미지로 구현되면서 플롯과 등장인물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등장인물의 복장과 의상의 색채, 소지품은 인물의 극중 정체성과 역할을 시청자에게 제시하는 관념적 메타기능을 하며, 카메라를 이용한 인물간의 시선 변화와 공간 분할은 인물간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고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와 극중 인물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메타기능을 수행함이 나타났다. 그리고 극중의 시각적 이미지는 서로 관계되고 반복됨으로써 극의 플롯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플롯을 암시하는 구성적 메타기능을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최근 멀티모달리티를 번역에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각 문법을 언어 기호가 시각 기호로 전환되는 데 대한 분석의 틀로 이용한 연구는 드물었다는 면에서 본 연구는 사례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리틀 드러머 걸>은 한국인 감독이 영어 원작 소설을 영국 드라마로 제작한 독특한 사례라는 점에서 언어를 넘어서 시각 이미지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추후 동일 감독의 다른 작품 및 다른 각색

물의 사례로 연구를 확장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매체가 변화할 때 감독은 대사, 영상, 음향이라는 다양한 기호를 번역해 하나의 통합된 TT로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T의 언어 기호가 TT의 시각 기호로 전환될 때 ST의 요소가 TT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호의 전환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각색 사례를 연구하여 이러한 의도의 배경과 현상을 살펴보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와 드라마만큼이나 소설을 각색한 영화도 동일 소설이 시대에 따라 수차례 다르게 다양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영화화되는 만큼 그 사례가 많다. 또한 소설 뿐 아니라 웹툰, 게임 등의 다양한 매체가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 번역학에서도 ST와 TT를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언어 기호만이 아닌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기호로 그 분석 범위를 넓히며, 기호 간 번역으로서 각색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길 기대한다. 특히 영상번역 분야에서는 멀티모달리티 이론 중 시각 문법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멀티모달리티 연구자들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의미를 전달하는 총체로서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기에 텍스트에서 언어를 포함한 어느 한 가지 기호만을 단독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Jewitt, Bezemer and O'Halloran 2016: 24-25). 연구자는 소설이 드라마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언어 기호가 시각 기호로 전환된다는 점에 기반 하여 시각 기호에 주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상 텍스트의 각색 및 연출을 맡은 감독이 영화가 아닌 드라마라는 매체를 선택한 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적으므로 충분히 자신이 평소 강조하는 시각 이미지의 반복 및 강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으리라는 전제 하에 시각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극장에서 상영되는 매체인 영화는 대개 러닝 타임이 2~3시간으로 제한되나 드라마는 여러 편의 에피소드로 제작되므로 각 에피소드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총체적으로 시각 기호를 반복 및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시각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분석대상을 시각 기호에 제한하였다. 소설의 내러티브가 영상물에서 어떻게 자막과 음향으로도 재현되었는지를 후속 연구에서 함께 분

석한다면 기호 간 번역의 측면에서 해당 텍스트를 하나의 총체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선영화 (2016) 「그림책에서 애니메이션으로의 시각기호 번역 연구-The Lost Thing 각색의 스킵포스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75-102.
- 신나안 (2018) 「관객의 몰입을 위한 영화포스터 번역-정보적 엔트로피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2): 175-202.
- 씨네플레이 (2019.8.4.) <[리틀 드러머 걸] 박찬욱 감독이 직접 밝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온라인 영상], 2019년 8월 19일 검색.
URL: <https://www.youtube.com/watch?v=QIpAMGrMhwI&t=26s>
- 이상빈 (2019) 「국내 젠더 번역서 표지의 이데올로기: 멀티모달리티 분석」, 한국번역학회 2019년 봄 학술대회, 4월 20일, 서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 조성은 (2005) 「Pride and Prejudice: Intertextuality in Film Translation」, 『문학과 영상』 6(2): 327-368.
- 조성은 (2014)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번역학연구』 15(2): 205-224.
- 최희경 (2011) 「번역서 표지의 변이 양상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5(1): 441-464.
- 하수정 (2019.3.14.) 「박찬욱 감독, 첫 미니시리즈 ‘리틀 드러머 걸: 감독판’..독창적 해석 ‘기대」, 『오센』, 2019년 5월 19일 검색.
- Catrysse, Patrick (2019) ‘Adaptation Studies, Translation Studies, and Interdisciplinarity. Reflections on Siblings and Family Resemblance’, *Adaptation* 12(3): 206-221.
- Jewitt, Carey, Jeff Bezemer and Kay O'Halloran (2016) *Introducing Multimodalit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aindl, Klaus (2020)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 Multimodal Conception of Translation’, in Monica Boria, Ángeles Carreres, María Noriega-Sánchez and Marcus Tomalin (ed.) *Translation and*

- Multimodality: Beyond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49-70.
- Kress, Gunther and Theo van Leeuwen (200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i, Long, Xi Li and Jun Miao (2019) 'A Translated Volume and Its Many Covers-A Multimodal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deology', *Social Semiotics* 29(2): 261-278.
- Machin, David (2007) *Introduction to Multimodal Analysis*, London: Bloomsbury.
- Milton, John (2009) 'Translation Studies and Adaptation Studies', in Anthony Pym and Alexander Perekrestenko (ed.) *Translation Research Projects 2*, Tarragona: Intercultural Group, 51-58.
- Munday, Jeremy (2016)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fourth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érez-González, Luis (2014) *Audiovisual Translation: Theories, Methods, and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분석 자료>

- Le Carré, John. (1983) *The Little Drummer Girl*, London: Penguin Books.
- 박찬욱 (감독) (2018) <The Little Drummer Girl> [TV 드라마], London: BBC.
(Watcha Play에서 유료구매)

[Abstract]

Metafunctions of Visual Images in <The Little Drummer Girl>

Park, Kunyo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defines adaptation of the TV drama *The Little Drummer Girl* from John le Carré's novel *The Little Drummer Girl* as an example of intersemiotic translation. To analyze the visual images that stand out among different multimodal elements in the drama, Kress and van Leeuwen's concept of visual grammar was us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visual images serve three metafunctions to the viewers. First, the outfits and possessions of the characters serve the ideational metafunction that presents the characters' identities and roles to the viewers. Second, TT shows the change of the characters' gaze and spatial division using the camera, which serves the interpersonal metafunction as it represents the change of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s and also changes the relationship of the characters and the viewers. Third, the visual images are related to one another and repeated throughout the drama, serving the textual metafunction as they allude to the incidents in the plot and form the connections in the overall contents. This article has implications as a case study that analyzes the intersemiotic translation of linguistic signs to visual signs and shows the universality of visual images in that Park Chan-wook, a Korean director, adapted an English novel for an English television.

▶ Key Words: audiovisual translation, adaptation, intersemiotic translation, multimodality, visual grammar

▶ 주제어: 영상번역, 각색, 기호 간 번역, 멀티모달리티, 시각문법

박건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번역학과 석박사통합과정생

kypark1203@hufs.ac.kr

관심분야: 영상번역, 문학번역, 기호 간 번역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25일